www.tphtoyota.com
SMART EVOLUTION
스마트의 진화, 스타일의 완성
2016 ALL NEW RAV4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49호 1판 (음력 11월 18일)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선거구·예비후보 등록 무효 '임박'

여야 8차 협상도 결렬 … 사상 초유 사태에 총선 입지자들 당혹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 가능해 불공정 경쟁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2시간40여분간 회동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여덟 번째 회동했음에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연말까지 획정안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13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은 경기장도 없이 경기에 나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지난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도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광주(10명)·전남(30명) 등 모두 40명.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어깨띠 착용·명함배포·현수막 게재 등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김명진 남구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잘못한 탓에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을 해놓고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등 원외인사들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은 의정보고회 또는 민원인의 날 등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선거운동을 이어가겠지만 정치신인을 포함한 원외인사들의 경우 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의 정치력 및 협상력 부재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원외인사들이 여야 지도부에 대해 책임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들 측에선 선거구가 무효 되더라도 선거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어떤 방침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직권상정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장이 최종 직권상정할 중재안은 현행 선거구획정안 또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날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획정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 지역구 246석안이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올라온 뒤 국회에서 이를 거부하고, 최종으로 253석안이 다시 올려져 최종안으로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후배 연극인 '노을 보다' ▶2면
오월노래 14곡 음반 부활 ▶6면

그림편지－박구환 순천 ▶18면
미리보는 2016 스포츠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오늘 한·일 외무 회담…소녀상에 웃음꽃 활짝 피기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막판 조율을 위해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일본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새정치 수도권·중진 의원들 조기 선대위 체제 전환 촉구

사실상 '文 2선 후퇴'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중진 의원들은 2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문재인 대표 2선 후퇴를 의미하는 '조기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대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주류 좌장 격인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은 '미봉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중재안이 내분 사태의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조기 선대위 중재안의 당론화 추진과 함께 김 전 대표, 박 전 원내대표의 탈당 만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선으로 후퇴해 일상적 당무만 수행하고 '혁신형 선대위'를 조기에 꾸려 공천권 등 선거와 관련한 전권을 넘기자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에 걸친 중진 및 수도권 의원 논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께서 선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시도록 요청키로 했다"며 "최고위는 20대 총선에 관한 권한을 선대위에 위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기선대위 구상은 연쇄 탈당을 막기 위한 최후 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김성곤 의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53명 외에 오늘 자리하지 못해 위임한 의원들까지 모두 합해 총 67명이 이 요구안에 동의했다"며 "저희 당 의원 121명 중 과반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당으로 기운 김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천권 나누기로 봉합하자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문 대표 즉각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우상호·박홍근·윤호중·민병두·최민희·최동익·유인태·김영주·인재근·강창일·한정애·안민석·유은혜·홍익표·백재현·김기식·이학영·김상희·박광온·강기정·유대운·이미경·설훈·최규성·홍영표·장하나·이목희·김경협·김기준·박병석·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나주 예인방 '엄마의 강'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지역극단 첫 수상 쾌거

나주에서 활동하는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 지역 연극의 힘을 보여줬다.

'예인방'의 창작극 '엄마의 강'이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연극대상은 (사)한국연극협회가 1년간 전국에서 공연된 연극작품 가운데 선정하는 상으로 지역 극단이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인방'의 수상은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지방 극단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해 초연된 '엄마의 강'은 전과자와 현직 검사인 이복형제를 둔 어머니가 아들의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이다. 특히 '엄마야 누나야'로 잘 알려진 나주 출신 고(故)안성현 작곡가의 곡들을 테마음악으로 사용, 감동을 더한다.

예인방 '엄마의 강' 출연진

'엄마의 강'은 김성진 고구려 대학교 교수가 희곡을 쓰고 '마파도' 등을 감독한 이상훈씨가 예술감독을, 송수영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한국 연극계 중견 배우인 이승호, 김영, 임은씨 등이 출연했다.

올해 창단 35주년을 맞은 예인방은 지금까지 300회 차례 공연을 펼쳐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지역 극단으로는 드물게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창작극 '김치'를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인의 밤에서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